

거주자 중심의 공유공간 계획을 위한 실내디자인 지침 분석연구

An Analysis of Interior Design Guidelines
for User-Centered Common Space

유서연* / Yoo, Seo-Yeon
이연숙** / Lee, Yeun-Sook

Abstract

Apartment, which have become the major housing style in Korea,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housing culture as well as achieved a growth in volume. However, the demands and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have not been reflected in the apartment, because it has been developed only for a growth in volume. In this society, housing unit was the first consideration rather than common space. Therefore, a required resident-centered common space is the domestic housing market's necessity.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investigated previous studies on interior design guidelines for common space were analyzed using Murtha and Lee's user benefit criteria which emphasizes humanity. In-depth content analysis was employed in this study. The result showed that four categories of the model were related toward more user-centered residential environment-behavioral facilitation, physiological maintenance, perceptual maintenance, and social facilitation.

키워드 : 공유공간, 실내디자인지침, 사용자이득기준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대의 주거양식으로 정착된 아파트는 양적 측면의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거주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였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파트는 단위주호 위주로 계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위주호 뿐 아니라 단지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거주자 중심의 단지설계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거주자의 요구를 반영한 공유공간의 계획 지침을 만들고자, 이에 관련된 기초문헌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 거주자 중심의 공유공간을 계획하기 위하여 관련문헌의 계획지침들을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틀로서 Murtha and Lee의 사용자이득기준(User Benefit Criteria)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이득기준 이론이 적용된 '노

인주택 실내디자인 지침(이연숙, 1993)'과 '미래주택과 공유공간(이연숙, 1995)'을 사용자 이득기준의 4가지 범주인 행동의 용이성, 생리적 유지, 지각적 유지, 사회적 용이성에 따라 각 공간-단위주호 앞 전이공간, 사회적 모임공간, 소규모 작업장, 출입구역, 로비공간- 대한 지침을 분석하였다.

2. 문헌자료 분석 도구

사용자 이득기준은 사용자의 복지를 높여주기 위한 환경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자가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용자 이득의 영역 범주를 행동의 용이성(사용자가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능), 생리적 유지(신체적 쾌적감이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기능), 지각적 유지(환경의 행태와 의미에 대한 인지력을 지원해 주는 기능), 사회적 용이성(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해주는 기능)으로 나누었다.

*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 부회장,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거주자 중심의 공유공간 계획을 위한 실내디자인 지침 분석연구

An Analysis of Interior Design Guidelines for User-Centered Common Space

유석연 이연숙
 Yoo, Seok-yeon Lee, Yeonsuk
 Housing and Interior Design, Yonsei University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의 주거양식으로 정착된 아파트는 양적 성장과 함께 우리 주거 문화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주의의 일면으로, 거주자의 특성이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단위주제로 위주로 계획되어, 단위주택과 공유공간 간의 연계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을 낳았지만,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지계획 및 공유공간 계획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거주자의 요구를 반영한 공유공간의 계획 지침을 만들고자, 이에 관련된 학계 문헌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거주자 중심의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 거주자 중심의 공유공간을 계획하기 위하여 관련문헌의 계획지침들을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틀로서 Murtha and Lee의 사용자이득기준을 사용하였다.

Murtha and Lee의 사용자 이득기준을 인간을 위한 계획 중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인간의 거론적인 요구사항인 행동의 용이성이나 생리적유지, 지각적 유지, 사회적 용이성까지 포함하고 있어, 여러 분야에 응용되어 사용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Murtha and Lee의 사용자 이득기준 이론이 적용된 2개의 국내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하였고, 각각의 문헌은 노인주택 실내디자인 지침(이연숙, 1993), 미래주택과 공유공간(이연숙, 1995)으로, 이 문헌들을 사용자 이득기준의 4가지 범주인 행동의 용이성, 생리적 유지, 지각적 유지, 사회적 용이성에 따라 각 공간에 대한 지침을 분석하였다.

아파트는 여러 공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위주요 앞 건이공간, 사회적 모임공간, 소규모 작업실, 휴식구영역, 로비공간으로 한정한다.

문헌자료 분석 도구

Murtha and Lee의 사용자 이득기준은 사용자의 복지를 높여주기 위한 환경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자가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용자 이득의 영역 범주를 다음의 4가지로 나누고 있다.

- 행동의 용이성: 사용자가 여러 행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거나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적 특성이 갖는 지원성
- 생리적 유지: 행동을 수행하는 동안에 사용자의 생리적 생화학적 쾌적성이나 건강을 지속시켜 주는 환경의 지원성
- 지각적 유지: 환경의 형태와 의미가 사용자에게 적절히 전달되는 지와 관련된 지원성
- 사회적 용이성: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할 비합당한 수준으로까지 촉진시키는 환경의 지원성

문헌자료 특성 및 분석: 노인주택 실내디자인지침

'노인주택과 실내디자인 지침'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진 지침으로,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도 거의 모든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

공간	범주	행동의 용이성	생리적 유지	지각적 유지	사회적 용이성	계
전체	빈도(%)	38(44.4)	28(34.0)	12(14.3)	5(6.2)	81(100.0)
휴식공간	빈도(%)	7(56.0)	0(0.0)	2(16.7)	2(25.0)	12(100.0)
모임공간	빈도(%)	4(90.2)	7(15.9)	5(11.1)	1(2.2)	17(100.0)
작업실	빈도(%)	6(66.7)	4(44.4)	0(0.0)	2(22.2)	9(100.0)
휴식구	빈도(%)	7(35.0)	5(25.0)	0(0.0)	8(40.0)	18(100.0)
로비	빈도(%)	12(30.0)	2(5.0)	2(5.0)	5(12.5)	17(100.0)
계	빈도(%)	117(55.9)	43(19.9)	19(8.8)	32(14.9)	211(100.0)

문헌자료 특성 및 분석: 미래주택 공유공간

'미래주택과 공유공간'은 단지계획 중심의 디자인 지침에 관한 문헌으로, 거주자들의 사회적 상호관계를 촉진시키는 공유공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공간	범주	행동의 용이성	생리적 유지	지각적 유지	사회적 용이성	계
전체	빈도(%)	14(40.0)	8(22.2)	11(31.4)	2(5.7)	35(100.0)
휴식공간	빈도(%)	3(100.0)	0(0.0)	0(0.0)	0(0.0)	3(100.0)
모임공간	빈도(%)	13(72.2)	1(5.6)	3(16.7)	1(5.5)	18(100.0)
작업실	빈도(%)	2(66.7)	2(6.7)	5(15.2)	3(9.1)	12(100.0)
휴식구	빈도(%)	9(52.9)	3(17.6)	2(11.8)	3(17.6)	17(100.0)
로비	빈도(%)	6(50.0)	2(16.7)	1(8.3)	3(25.0)	12(100.0)
계	빈도(%)	67(56.8)	17(14.4)	22(18.6)	12(10.2)	11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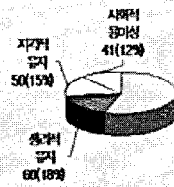
분석 결과 종합

문헌을 분석하여 총 335개의 디자인 지침을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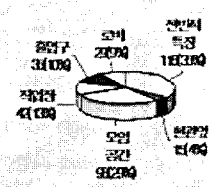
노인주택 217개 > 미래주택과 공유공간 118개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원성의 범주는 행동의 용이성 차원으로 이 범주의 특성이 인간 의 삶의 질을 결정 하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지원성으로, 대상별, 공간별 특성에 상관 없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간에 따른 디자인 지침이 전반적 특성을 제외한 모임공간과 작업실에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은, 공유공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공간의 인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각적 유지 측면이 많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주별 디자인지침분포



공간별 디자인지침분포



결론

위의 분석결과들을 통하여 주거환경 내의 각 공간들에 어떠한 범주의 지원성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단위주택 뿐만 아니라 단지의 공유공간까지, 행동의 용이성 측면 뿐만 아니라 생리적 유지, 지각적 유지, 사회적 용이성 측면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하며, 각각의 범주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실내디자인 지침은 거주자 중심의 주거환경을 위한 수많은 계획요소를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소수의 문헌자료에 의존한 것이므로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더 많은 문헌연구와 더불어 직접 거주자의 행태와 실제요소를 병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거주자 중심의 주거환경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이연숙, 미래주택과 공유공간, 초판, 경춘사, 1995
2. 이연숙, 노인주택 실내디자인 지침, 초판, 경춘사, 1993
3. 고은영, 김연, 집합주택의 공유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건축기술발표논문집, pp. 31-34, 2001.04
4. 이소영, 거주자의 요구를 기초로 한 공유공간 계획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6
5. 조성철, 강혜경, 아파트 공유공간에 대한 거주자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 제9권 제3호, 1998